

『黃帝四經』과 『黃帝內經』의 陰陽論 比較 研究

지재동 ·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Comparative Study of the Yin-Yang Theory of Huang di's Four Classics and The Hwangjenegyeng's

Jae Dong Jee, Kwang Joong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Huang di's Four Classics introduces the first full-scale Yin-Yang theory. The ancient idea of Yin-Yang could be classified systematically throughout Huang di's Four Classics and make itself the cause of creation, movement, and variation. The Tao of essence and Reason-Law(理法) is a single 'One'(一) and completes the reality of Tao adopting Yin-Yang as an elementary. The elementary of Yin-Yang has rules and laws and then the Tao manifest itself through Yin-Yang. The features of Yin-Yang theory in Huang di's Four Classics are placed on the explan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embodied as class and system. The class and system are the structured worlds in the space based on the upper and lower sides Yin-Yang idea(上下陰陽觀). It means the system by Yin-Yang theory, corresponding to the flat structure of the Sky and the Earth mentioned in Gaitian theory, one of the ancient theory of the universe structure. By adopting Huang di's Four Classics' Tian-zhi Yin-Yang theory(天地陰陽論) and developing the class system in human bodies, The Hwangjenegyeng appreciates human bodies as a whole. In addition, by applying Four seasons Yin-Yang theory not only to human bodies but also to the space of Liu-he(六合) and the time of Four Seasons(四時), it developed Yin-Yang theory of Huang di's Four Classics more abundantly and embodied Yin-Yang theory in many fields including physiology, pathology, diagnostics, and prescriptions.

Key words : Huang di's Four Classics(黃帝四經), Yin-Yang(陰陽), Liu-he(六合), Four Seasons(四時), Huang-Lao(黃老)

서 론

『陰陽』 두 글자는 商代에 처음 보이며, 최초의 陰陽觀念은 기본적으로 밝음과 어두움을 의미하는 自然現象에 대한 것이었다. 戰國時代 사회생활이 풍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 역시 進一步하여 陰陽觀念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陰陽을 사회영역에 끌어들이어 정치와 윤리적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논증한 『黃帝四經』¹⁾은 黃老思想의 最古著作으로서²⁾ 陰陽思想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黃帝四經』의 陰陽思想은 自然界의 陰陽變化和 萬物의 生滅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哲學的 意義를 부여하여 春秋時代 이래 陰陽思想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

한편 『黃帝內經』은 古代에 宇宙, 社會, 文化 전반에 걸친 思想과 인간이 경험하여 온 醫療的 實踐이 상호 검증되면서 작성된 集團 著作이다⁴⁾. 『黃帝內經』이 보여주는 당시의 科學觀

* 교신저자 : 김광중,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j@dhu.ac.kr, · Tel : 053-770-2230

· 접수 : 2009/09/14 · 수정 : 2010/03/22 · 채택 : 2010/06/01

- 1) 李東哲, 黃帝四經의 哲學 研究, 博士論文, 1996.12 p.10. 『黃帝四經』은 經法, 十大經, 稱, 道原의 四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漢書·藝文志』에 열거된 저작 중에 『黃帝四經』만 네 篇으로 經法과 十大經은 經의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두 篇도 經의 文체로 쓰여져 唐蘭은 「馬王堆『老子』乙本卷前古佚書的研究」에서 이것이 古佚書 『黃帝四經』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학계는 唐蘭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 2) 吳光, 黃老之學通論(杭州 : 浙江人民出版社, 1985), pp.129-133. 吳光은 『黃帝四經』을 『黃老帛書』라 하여 成書年代를 戰國末期로 보고 있다. 黃老學派의 대표작으로 『黃老帛書』, 『鶴管子』, 『呂氏春秋』를 보는데 黃老思想 形成時期的 대표작으로 『黃帝四經』을 꼽고 있다. 『黃帝四經』이 黃老著作의 最古 代表作이라는데 연구자들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 3) 李 夏, 黃帝四經陰陽思想研究, (山東濟南, 管子學刊, 2006), p.26.
- 4) 주민출판사편집부, 類編黃帝內經(대전: 주민출판사, 2006), pp.4-9. 用語, 文體, 內容, 考古學的 發掘資料 등의 근거로 보면 『黃帝內經』의 지은이와 成書年代는 각 篇마다 다르고 어느 한 時期로 단정지어

念은 人體에 대한 認識과 治療 經驗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적극적으로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실천된다는 점에서 단지 醫療 經驗 技術의 集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은 『黃帝內經』이 醫學書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科學觀念을 반영하고 있는 黃老思想이라는 보다 큰 범위의 思想 혹은 世界觀에 속해 있다는 견해와 연관된다⁵⁾. 그리하여 『黃帝內經』은 黃老的 宇宙論을 人體에 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人間 治療의 包括的 體系를 구성하였고 보여진다. 그러한 포괄적 체계의 하나로 표현되는 陰陽論은 『黃帝內經』의 핵심적 宗主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黃帝內經』이 黃老書의 하나로 간주되고 시대적으로 黃老思想과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黃帝四經』 陰陽論을 통하여 『黃帝內經』 陰陽論의 배태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宇宙와 自然, 社會의 일관된 사상적 흐름으로 나타난 『黃帝四經』의 陰陽論이 인간의 몸을 담고 있는 『黃帝內經』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원형에 접근하여 현재의 한의학이 통찰하고 넘어서야 할 새로운 지평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론

1. 陰陽體系의 形成

1) 自然觀察과 生活經驗

陰陽學說은 五行學說과 함께 韓醫學의 宗主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黃帝內經』에서 ‘陰陽’은 萬物의 本源으로서 東洋思想의 核心的 根幹을 이루는 ‘道’의 概念으로 昇華한다⁶⁾. 이러한 陰陽概念은 淵源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언급하기 힘들다. 다만 陰陽概念의 形成過程은 『黃帝四經』이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한 陰陽論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尙書』에 陽은 6번 나오는데 대부분 그 뜻은 산의 남쪽으로 해석된다. 또한 陰字는 3번 나오는데 산의 북쪽 혹은 어둠으로 나타난다. 『詩經』에서는 陰과 陽은 산등성마루의 북쪽과 산등성마루의 남쪽의 兩面을 지칭한다. 또한 『易經』에서는 “우는 학이 그늘에 있으니, 그 새끼가 이에 화답한다.(鳴鶴在陰, 其子和之)”고 하여 陰地를 이른다. 이로써 오래전의 문헌 가운데 陽字는 햇빛을 받아 분명하게 드러난 性態를 표시하는 것이고,

陰字는 햇빛을 받지 않고서 드러내고 있는 性態를 표시한다⁷⁾.

許慎의 『說文解字』에 陰陽의 뜻을 보면 “陰은 암으로 물의 남쪽이요, 산의 북쪽이다. 陽은 높고 밝음이다.” 했는데 이는 물의 남쪽과 산의 북쪽에는 태양이 비치지 않아 陰이라 하고 반대로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은 태양이 잘 비치 陽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이를 설명하여 “산의 남쪽이라 말하지 않고 陽이라 말한 것은 陰의 해석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의 남쪽을 일러 陽이라 한다.”⁸⁾라고 주석을 붙였다.

西周末 伯陽父는 “陽이 아래에 잠복하여 능히 나오지를 못하고, 陰의 꺾박을 받아 능히 증발하지 못하면 이에 地震이 있게 된다.”¹⁰⁾고 하여 陰陽二氣의 升降으로 地震의 자연현상을 해석하였다. 또한 范蠡가 “陽이 極에 달하면 陰으로 전화하고, 陰이 極에 달하면 陽으로 전화하며, 해가 떨어지면 다시 솟아오르고, 달은 둥글게 되면 이지러지게 된다.”고 하여 陰陽을 사용하여 大自然의 週期的 變化를 概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西周末에서 春秋時代에 이르기까지 陰陽觀念이 크게 제고되어 대대적으로 自然現象을 概括하게 됨으로써 陰陽關係는 事物의 本質性에 대한 法則의인 계사로 간주되었고¹¹⁾, 이후 抽象化된 陰陽概念으로 발전하여 普遍的 意味로 확장되어 간다¹²⁾.

2) 陰陽概念의 形成

陰陽觀의 발전은 宗教的, 自然觀察과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분류되고 체계화되어 抽象的 意味로 발전되었다. 陰陽概念의 形成에 주요한 著作은 『易經』과 老子에 관한 것이다. 『易經』은 『經』과 『傳』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간극은 700-800년의 거리가 있다. 이 기간 동안 老子의 思想이 중간고리 역할을 하였다¹³⁾. 추상화된 陰陽概念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하여 陳鼓應은 “春秋時代 『易經』에는 아직 陰陽概念이 생기지 않았고 春秋時代 陰陽으로 『易』을 해석한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陰陽으로 『易』을 해석한 현상은 戰國時代에 나타난다.”¹⁴⁾고 하였다. 또한 “『易傳』은 陰陽을 範疇로 해서 사물의 근본적인 성질을 설명하여 陰陽을 易學 哲學의 기본 원리로 만들었다.”¹⁵⁾고 하였다. 春秋末期 老子는 陰陽이라는 만물 발생 발전의 기본 동력 혹은 속성을 기초로¹⁶⁾ 『經』과 『傳』의 사이를 陰陽概念으로 充填하여 중국 역사상 최초로 哲學 體系를 창건한 것이다. 결국 春秋以前에 오랫동안 自然觀察과 生活經驗에 근접해 있던 陰陽概念

말할 수 없다. 『黃帝內經』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漢書』 『藝文志』이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唐代 王冰이 편집한 『素問』과 『靈樞』 각 81권이다.

5) 金義政, 黃老思想의 天人感應觀 研究, 博士論文, 2004.1 pp.14-15. 山田慶兒는 ‘中國醫學의 起源’에서 『黃帝內經』이 黃帝學派라는 一群의 學派에 의해 성립되었는데 그는 黃帝學派의 증거로 『黃帝內經』의 상당수가 問答體樣式으로 저술되어 있음을 든다. 그리고 이 學派는 戰國에서 韓初에 흥성한 黃老思想이라는 조류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중요한 증거가 馬王堆 古醫書이다. 馬王堆醫書 등의 사상을 보완해 체계화하고 道家思想의 영향아래 최초의 學派를 형성한 것이 ‘黃帝派’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黃帝內經』은 기존의 馬王堆 醫學 傳統과 黃老 宇宙論 및 治身思想 傳統을 융합한 黃老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黃老的 世界觀에 기반한 醫學養生思想이라고 평할 수 있다.

6) 『素問』 『陰陽應象大論』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이경우 譯, 編注解釋 黃帝內經素問 1, p.155. 재인용.)

7) 劉長林, 주역의 건강철학, (고양시 : 정보와 사람, 2007), pp.101-102.

8) 許慎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88), p.731. “陰, 暗也, 水之南山之北也, 陽, 高明也.”

9) 許慎撰, 段玉裁 注, 前揭書, p.731. “不言山南曰易者, 陰之解可錯見也, 山南曰陽”

10) 양계초, 풍우란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 신지서원, 1993), p.68. 재인용.

11) 劉長林, 前揭書, p.105.

12) 『周易·繫辭傳』 “一陰一陽之謂道” (김석진, 대산주역강의3, p.55.) 『周易·設卦傳』 “立天之道曰陰與陽” (김석진, 前揭書, p.324.), 『老子』 제42장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왕필, 임채우 역, 왕필의 노자, p.170.)

13) 陳鼓應,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 예문서원, 1996), p.113.

14) 陳鼓應, 前揭書, p.25.

15) 陳鼓應, 前揭書, p.125.

16) 陳鼓應, 前揭書, p.124.

은 春秋末期 老子에 의해 陰陽概念으로 포착되기에 이른다. 그럼으로 해서 『周易』과 老子的 陰陽觀이 自然과 宇宙를 아우르며 哲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黃帝四經』의 陰陽觀은 社會와 國家를 구성하는 구체사물과 정황에 다시 환원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陰陽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黃老思想의 큰 흐름 아래 『黃帝內經』에서 인체 담론을 중심으로 陰陽觀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주요한 측면은 어떻게 주변환경에 대한 陰陽의 分類를 體系化 하였는가에 대한 思惟의 기반에 관한 것이다. 抽象化의 과정은 구체사물과 사건의 정황이 흘러가는 가운데 概念으로 포착된 것이며 이에 대한 分類는 중국의 사상적 저변에 흐르고 있는 ‘相關의 思惟’에 기인한다. 相應, 相取, 相召의 관계를 가지는 모든 현상을 통합함으로써 陰과 陽으로 概括하고 外延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결코 무한정 확장된 것은 아니며, 그 內의 意味는 抽象的으로 변하여 오히려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3) 『黃帝四經』의 相關의 思考

‘相關의 思考’에 기반하여 현상 세계를 構造化한 것을 感應의 宇宙論이라 한다.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感應 宇宙論은 “구체적 사물의 과학”인데 현실적으로 지각된 구체적 현상들을 “수평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⁷⁾. 수평적으로 연결해 주는 구성 자료는 모두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다. 동물, 식물, 사방위, 인간 특성, 천체 등은 모두 현실에 실재하는 것들이다. 甲骨文에 나타나는 정보들과 『詩經』이나 『書經』 등 儒家의 傳統에 연관된 원전에서 神的인 것이 하나의 영역으로서 있는 한 이러한 感應의 宇宙論의 성립 근거는 애초부터 제한적이다. 神的인 것은 현실세계의 지각으로부터 먼 것이고 애초부터 종교적 영역의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레비스트로스의 견해에 의하면 感應의 宇宙論이 그가 말하는 “야생적 사고”¹⁸⁾의 원초성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수평적으로 감각세계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은 原始的 思惟로부터 더 나아가 어느 정도 분류와 체계화를 통한 抽象的 概念의 발전단계에 이르기까지 科學的 思考의 기반이 된다. 이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는 感覺의 원초성에 근거한 唯物論의 構造主義에 대한 해석¹⁹⁾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어떻게 感應의 宇宙論이 科學的 內容을 수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現代의 學者들은 이러한 종류의 사고방식을 ‘연관적 사고(associative thinking)’나, ‘조정적 사고(co-ordinative thinking)’²⁰⁾라고 불렀다. 그것은 연관과 직관에 의해서 작용하는 체계이고, 그 자체의 논리와 그 자체의 因果法則을 가진다. 비록 그것이 외부의 원인들이 강조되는 近代科學의 특징적 사고방식과는 물론 다르지만, 그 자체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합리적인 사고의 형태이다. 왜냐하면 近代科學은 因果的 說明을 체계화된 자연 법칙 아래 종속시킬 수 있는 후에야 因果的 說明에 만족하지만, 원형과학의 因果的 思考²¹⁾는 相關的 圖式에 들

어맞아야 만족²²⁾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相關의 思考’는 圖式으로 體系化되어 抽象化되는 자체로 因果的 思考를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黃帝四經』에서 “분류를 할 때에는 언제나 전체적인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陰과 陽을 사용하라. 하늘은 陽이고 땅은 陰이다.”²³⁾라고 하여 陰陽論을 본격 제기하면서 ‘相關의 思考’를 기반으로 陰陽을 分類하고 體系化한다. 우리에게 당연한 듯 보이는 이러한 體系와 構造는 ‘相關의 思考’의 인식 틀을 통해 『黃帝四經』이 분류한 현상과 존재에 대한 陰陽의 歸屬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하늘-땅, 봄-가을, 여름-겨울, 낮-밤, 대국-소국, 남-여 등의 관계는 ‘相關의 思考’에서 유사/대조에 의한 관계이고, 하늘-봄-여름-낮-대국-남, 땅-가을-겨울-밤-소국-여의 관계는 서로 인접/격리에 의한 관계이다. 유사/대조의 관계는 내용상 반대되는 것들끼리 계열적으로 분리되어 수평적 질을 공유한다. 반면 인접/격리의 관계는 근친한 것끼리 파급하며 증명하는 양식으로 인접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²⁴⁾.

2. 『黃帝四經』의 陰陽體系

1) 生成論과 陰陽

『黃帝四經』에서 本體와 理法의 ‘道’는 ‘一’이며 陰陽을 原質로 삼아 생성되어 道의 본체를 이룬다. 陰陽思想으로 ‘道’의 本源을 해석한 것이다. 『黃帝四經』에서 道는 우주의 本源이며 ‘一’로서 氣一元論의 의미가 있다. 道의 本體가 老子에게서 모호함이 『黃帝四經』을 통해 實在性이 강화되어 나타남이다. 그리고 ‘一’로서의 氣가 天地로 나뉘지고 陰陽으로 나뉘지게 된다.

“영원한 없음의 시초에 우주는 무차별적으로 뒤섞여 있고 크게 비어 있었다. 빔은 하나(일)와 같으니 늘 하나일 따름이다. 혼돈스레 뒤섞여 밝음과 어두움이 아직 없었고 신묘하고 미세한 기운이 온통 가득 찼으며 순수하고 맑은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듯 했고 만물은 의존해 있지 않은 듯 했다. 그래서 형체를 가진 것이 없었고 크게 뒤섞여 있어서 이름이 없었다.”²⁵⁾

“황제가 말하였다.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무리를 지어 …한 울타리가 되어 어둠도 밝음도 없었으며, 음도 없었고 양도 없었다. … 이제 비로소 둘로 나뉘어 음과 양이 구별되고,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로 나뉜다.”²⁶⁾

‘道’는 天地萬物 生産 以前에 있는 것으로 大宇宙에 있고 혼

17) CI.레비-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서울 : 한길사, 1996), pp.175-182.

18) CI.레비-스트로스, 前揭書, p.188.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를 자연에서 발견되는 실체, 과정, 현상의 종류들이 인간 세계의 다양한 실체, 과정, 현상의 종류들과 일치하거나 조화한다고 생각하는 우주.인간 합일론이라고 한다.

19) CI.레비-스트로스, 前揭書, pp.49-64.

20) 조셉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서울 : 까치, 1998), p.213.

21) 정용환, 장재의 철학, (서울 : 경인문화사, 2007) p.98. 일상적 경험적 지식에서 상관적 사고가 사용되고, 상관적 사고를 더 추상화하는 분석과정을 통하여 인과적 사고가 수행된다고 한다.

22) 앤거스그레이엄, 도의 논쟁자들, (서울 : 새물결, 2001), p.590.

23) 『稱』“凡論必以陰陽□大義, 天陽地陰”(陳鼓應, 前揭書, p.464.)

24) 정용환, 前揭書, pp.98-107. 상관적 사고에서 유사/대조에 의한 관계를 페르다임적 관계라 하고, 인접/격리에 의한 관계를 선택적 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분류는 원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구조주의 언어학을 참조한다면 상관적 사고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5) 『道原』“恒無之初, 遯同大虛. 虛同爲一, 恒一而止. 濕濕夢夢, 未有明悔. 神微周盈, 精靜不熙. 故未有以, 萬物莫以. 故無有形, 大遯無名.”(陳鼓應, 前揭書, p.470.)

26) 『十大經』「觀」“黃帝曰：群群□□□□爲一困. 無晦無明, 未有陰陽. 陰陽未定, 吾未有以名. 今始判爲兩, 分爲陰陽, 離爲四時.”(陳鼓應, 前揭書, p.268.)

돈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晝夜가 없고,陰陽二氣도 없으며形體도 이름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無形無名의‘道’는‘一’이며‘兩’으로 분화되어天和地로 나뉘고,陰과陽으로 나뉘며 더 나아가春夏秋冬四時로 나뉜다.『黃帝四經』의道는陰陽二氣가 섞이고 미분화의 물질성을 가진 실체임을 엿볼 수 있다.

生成論의陰陽을 종합하면,道에서天地가 생기고²⁷⁾,天地 안에 생겨난萬物은天地의 기준에 따라陰陽으로 나누어 판별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객관사물의存在論의 성격을 부여받는다. 객관사물은陰陽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²⁸⁾.『黃帝四經』의本體論의陰陽觀은道가 가지는氣의인 의미를 통해二分化되고,陰과陽은 각각 獨立的 實在로서 설정되어진다. 그리하여 객관사물의體系的 分類는‘理’와‘法’²⁹⁾을 통해 법칙과 질서를 갖출陰과陽의 각각의原質로서 준비되고,生成과變化의本體로서 동력을 갖게 된다.

2) 運動과 變化의 原因

이陰陽의原質은규율과법칙을가지고변화를일으킨다³⁰⁾. 이것은理法으로서道가陰陽을통해서구체적으로발현된것이다.『黃帝四經』은陰陽으로객관세계의生成,運動과變化를설명한다.

“음과 양이 만물에 구비되어 변화가 일어난다.”³¹⁾

“안정됨과 행동함이 서로 고르게 하며 덕과 형벌은 서로 이룬다. 대답하는 양자에게는 각각의 이름이 있으니 서로 보완하면 이를 수 있다.”³²⁾

“두 가지는 서로 기르고, 때에 따라 서로 이룬다.”³³⁾

“무릇 하늘과 땅의 도, 추위와 더위, 건조함과 습함은 결코 함께 설 수 없으며 부드러움과 강함, 음과 양은 함께 운행할 수 없다.”³⁴⁾

“하늘과 땅이 이미 정해졌으니 온갖 동물들은 반드시 다룬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흉한 일이지만, 다투지 않으면 공을 이룰 수 없다.”³⁵⁾

『黃帝四經』의陰陽 두 가지는天地에서분화된 각각의 독립적 실체로서 상호 투쟁하며 보완하는兩方面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陰과陽의 대립적 연관이易에서와 같이純陰,純陽을전제하면陰과陽은 상호 순차적으로 또는 교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즉日和月같이 독립적인 존재가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작

을 형성하기도 한다.

“지극하여 다시 돌아옴은 하늘의 성이다.”³⁶⁾

“지극하여 다시 돌아옴과 성하면 쇠하는 것이 천지의 도이고 사람의 이치이다. 거스름과 따름은 같은 도이나 이치가 다른 것으로 깊이 역순을 아는 것을 이르러 도의 강령이라 한다.”³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처럼陰이 다하면反하여陽이 되는 순차성을 제시한다. 두 가지의 독립적實在가 지극히窮極에 다다르면 반대로逆轉되는 것이다. 곧陰陽 두 가지 종류의 원질이 가진 모순의 추동으로 말미암아逆으로 또는順으로 운동, 변화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모순의相互依存과相互轉化 관계이다.

『黃帝四經』은 사물의 모순을 개괄하고, 다시 경험 사실의大小,難易,長短,高下 등 대립면의相反相成 관계를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이는陰陽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도 적용되는 공통의 규율로 인식한다. 이는 각종 사회 정치문제를 조절하는 기본 수단으로陰陽刑德論³⁸⁾을 정치철학으로 수립하였다³⁹⁾.

3) 等級과 秩序

『黃帝四經』은陰陽思想을 통해서 사회윤리로서等級制度의 필연성과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류를 할 때에는 언제나 전체적인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陰과陽을 사용하라는 전체하에人倫關係의 각 방면에陰陽을 확장한다.

“큰 나라는 양이고 작은 나라는 음이다. 강한 나라는 양이고 약한 나라는 음이다. 군주는 양이고 신하는 음이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부친은 양이고 자식은 음이다. 형은 양이고 아우는 음이다. 어른은 양이고 어린이는 음이다. 귀한 사람은 양이고 천한 사람은 음이다. 영달한 사람은 양이고 궁핍한 사람은 음이다.”⁴⁰⁾

통치집단 내부에君臣上下와貴賤이 존재하고, 혈연적 가정의 내부에父子,夫婦,長幼의 구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等級秩序의 확정성은 존재를 기반으로陰과陽이 고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귀천의 신분 질서에는 고정된 위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를 “天地에는 영원한 법칙이 있다.”⁴¹⁾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모든陽은 하늘을 본받고 모든陰은 땅을 본받는다⁴²⁾고 하여 하늘이 높고 땅은 낮은 것과 같은 樣態처럼尊卑貴賤의 등급차별을 확정하고 있다. 위의 ‘相關의 思考’에서 살펴본 것처럼 등급차별은 유사/대조의 패러다임적 관계로 내용상 반대되는 것들끼리 계열적으로 분리되어 인륜등급이라는 수평적 질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陰陽의 固定性이다.陰陽의 概念이 두 종류의 기본적 기능과 속성이라고 할 때 『黃帝四經』

27) 『十大經』 「行守」 “先天地生”(陳鼓應, 前揭書, p.387.)

28) 『稱』 “凡論必以陰陽口大義。天陽地陰, 春陽秋陰, 夏陽冬陰, 晝陽夜陰。大國陽小國陰, 重國陽輕國陰。有事陽而無事陰, 伸者陽而屈者陰。主陽臣陰, 上陽下陰, 男陽女陰, 父陽子陰, 兄陽弟陰, 長陽少陰, 貴陽賤陰, 達陽窮陰。娶婦生子婦, 有喪陰。制人者陽, 制於人者陰。”(陳鼓應, 前揭書, p.464.)

29) 法은 등급사회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질서를 사회, 정치, 인사, 질서의 안배에 까지 확대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30) 陳鼓應,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前揭書, p.276.

31) 『十大經』 「果童」 “陰陽備物, 化變乃生。”(陳鼓應, 黃帝四經今註今譯, p.300.)

32) 『十大經』 「果童」 “靜作相養, 德虛相成。兩若有名, 相與則成。”(陳鼓應, 前揭書, p.300.)

33) 『十大經』 「姓爭」 “兩相養, 時相成。”(陳鼓應, 前揭書, p.329.)

34) 『十大經』 「姓爭」 “夫天地之道, 寒燥燥濕, 不能并立。剛柔陰陽, 固不兩行。”(陳鼓應, 前揭書, p.329.)

35) 『十大經』 「姓爭」 “天地已定, 蛟蟻爭。作爭者凶, 不爭亦毋以成功。”(陳鼓應, 前揭書, p.323.)

36) 『經法』 「論」 “極而反者, 天之性也。”(陳鼓應, 前揭書, p.184.)

37) 『經法』 「四度」 “極而反, 盛而衰, 天地之道也, 人之理也。逆順同道而異理, 審知逆順, 是謂道紀。”(陳鼓應, 前揭書, p.163.)

38) 『十大經』 「姓爭」 “刑晦而德明, 刑陰而德陽, 刑微而德彰。”(陳鼓應, 前揭書, p.325.), 『十大經』 「觀」 “春夏爲德, 秋冬爲刑。”(陳鼓應, 前揭書, p.276.)

39) 鄭日童, 漢初의 政治와 黃老思想, (서울: 백산자료원, 1997), p.108.

40) 『稱』 “大國陽小國陰, 重國陽輕國陰, 主陽臣陰, 上陽下陰, 男陽女陰, 父陽子陰, 兄陽弟陰, 長陽少陰, 貴陽賤陰, 達陽窮陰。”(陳鼓應, 前揭書, p.464.)

41) 『經法』 「道法」 “天地有恒常, 萬民有恒事, 貴賤有恒位。”(陳鼓應, 前揭書, p.74.)

42) 『稱』 “諸陽者法天, 諸陰者法地。”(陳鼓應, 前揭書, p.464.)

의 陰陽概念은 추세로 드러나는 樣態라기보다 분리된 陰과 陽의 固定性에 그 특색이 있다. 이것은 陰陽의 상대성과 영활한 변동 가능성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天地의 기준을 통한 유사/대조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場에서 陰陽의 구별이 확정적일 뿐이다. 하나의 場은 통일된 秩序와 等級을 목적으로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시대적 배경과 조우한다. 이것은 사물이 갖추고 있는 陰陽 속성의 정도를 현시하는 層差性의 문제가 시간의 연속적 상황이 아닌 固定的 思考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陰 가운데 陰陽이 다시 있고, 陽 가운데 다시 陰陽이 있음은 空間 안에 위치적으로 上을 陽으로 두고 上에서 上下를 나누어 陰陽을 나누는 層差性이 있지만, 문제는 四時와 같은 陰陽의 속성 정도에 따른 時間的 層差性은 連續的 時間觀念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결국 『黃帝四經』의 陰陽論은 天地라는 空間 場에서 작동됨을 의미한다.

『黃帝四經』은 道家를 기반으로 法家를 핵심적으로 융합한 사상을 담고 있다. 德治와 法治라는 양측면의 대립적 학설을 결합한 정치적 논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조응하는 空間的 陰陽論을 통하여 ‘貴하고 賤함은 다른 것’이고 ‘貴賤의 등급이 있으며’, ‘貴하고 賤한 등급은 바로 잡힐 수 있음’을 강조하여 貴賤의 등급이 필연적임을 확고히 말하고 있다⁴³⁾.

4) 天文과 陰陽

古代的 天文에서 宇宙構造論에는 크게 蓋天說과 渾天說로 나뉜다. 蓋天說은 前漢 초기까지 유일한 과학적인 宇宙構造論이었다. 蓋天說과 渾天說은 天圓地方의 전통적 우주구조관념을 흡수하고 있다. 渾天說 역시 그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先後의 문제에서는 蓋天說이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蓋天說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舊說이 하늘과 땅을 두 개의 평행한 平面으로 본데 비해 新說은 땅에 두 개의 평행한 切斷面을 갖는 하늘이 球面으로 형성된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두 說 모두 하늘은 북극을 중심으로 左旋하며 해와 달은 右旋하여 즉 西에서 東으로 돈다. 渾天說은 蓋天說 보다 더욱 설득적인 構造論으로 흔히 달걀에 비유한다. 노른자는 땅이고 껍질은 하늘로 상정하여 하늘은 북극과 남극을 軸으로 回轉한다⁴⁴⁾.

『黃帝四經』은 戰國 中末의 著作이라는 지배적 의견⁴⁵⁾에 타당성을 둘 때 『黃帝四經』이 반영하고 있는 宇宙構造의 觀念은 蓋天說 舊說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빛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管子四篇』에서 宇宙構造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하늘은 잡아매고, 땅은 싣고 있다. 하늘이 잡아맨 것이 없으면 하늘은 이미 떨어지고, 땅이 싣은 것이 없으면 땅은 이미 가라앉았을 것이다. 무릇 하늘이 떨어지지 않고 땅이 가라앉지 않은 것은 잡아매거나 싣고 있어서이다.”⁴⁶⁾

이는 네 개의 기둥에 넓은 천을 펼쳐 잡아맨 대칭적⁴⁷⁾ 하늘과 땅을 연상하게 한다. 蓋天說을 반영하고 있다. 『管子四篇』이 莊子의 後學들에 의한 稷下著作이라는 李存山의 의견⁴⁸⁾과 『管子四篇』의 精氣論이 『黃帝四經』의 氣論을 배경으로 한 내용상의 先後에서 보면 역시 著作의 연대가 『管子四篇』보다 앞서 있는 『黃帝四經』의 宇宙構造論 역시 蓋天說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蓋天說과 渾天說의 宇宙構造論에서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宇宙構造와 陰陽論과 연관성에 관한 문제이다. 古代宇宙 構造論과 연관하여 陰陽論의 성격이 달라지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蓋天說 舊說은 하늘과 땅이 평면인 상태이다. 북극을 중심으로 해가 가까워서 회전하면 夏至에 가깝고, 북극을 중심으로 해가 먼 회전반경을 가지게 되면 冬至에 가깝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땅이 固定되어 있고 해가 수평인 하늘 면에서 북극을 중심으로 멀고 가까운 差異에 따라 계절의 變化가 결정된다. 陰과 陽의 대립적 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層差性에 의해서 變化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따른 해가 가진 속성인 빛의 強度에 의해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 해와 하늘의 주도성과 결정적 역할은 『黃帝四經』이 얼마나 天行의 관찰에 집중⁴⁹⁾했는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天文을 통해 『黃帝四經』의 陰陽論은 하늘과 땅이라는 두개의 평면에서 上下라는 空間的 陰陽論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渾天說은 해가 가는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 아마다게 이지는 渾天說에 대해 渾天說의 강력함은 하늘을 회전하는 球로 보고 黃道와 赤道를 설정하여 球面 天文學的 설명에 성공했다⁵⁰⁾는 데 있다고 한다. 이는 渾天說이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陰과 陽의 속성의 정도에 따라 대립적으로 상호간의 추세에 따른 계절의 變化를 더욱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과 같다. 陰과 陽의 消息은 상호간의 작용에 따른 變化의 근본으로 더욱 강력한 입장을 가지게 되며 四時陰陽觀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空間的 思考에서 보면 渾天說의 球形態를 상정한 하늘의 구조는 上下와 東西南北이라는 六合의 개념이 더욱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蓋天說의 하늘이 단지 땅과 대응한 平面的 構造에서 중요한 공간 개념은 四方보다 上下에 집중 될 수밖에 없다. 天行이 모두 같은 平面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蓋天說 新說과 渾天說은 半球面이든 完全球面이든 四方의 하늘에 나타나는 천문현상을 설명하는데 蓋天說 舊說보다 합리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한다.

종합하면 『黃帝四經』의 宇宙構造論은 蓋天說 舊說을 반영한 것으로 平面의 하늘과 땅의 구조로 설명된다. 이와 연관된 『黃帝四經』의 陰陽論은 陰과 陽이 각기 수평적으로 上下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陽의 주도성이 강한

43) 『經法』 「君正」 “貴賤有別，貴賤等。”(陳鼓應，前揭書，p.112.)，『十大經』 「果童」 “貴賤必謀。”(陳鼓應，前揭書，p.304.)

44) 아마다게이지 저, 김석근 역, 朱子의 自然學, (서울 : 통나무, 1991), p.39.

45) 金義政, 前揭書, p.11., 鄭日童, 前揭書, pp.91-93.

46) 『管子』 「白心」 “天或維之，地或載之。天莫之維，則天以墜矣。地莫之載，則地以沈矣。夫天不墜，地不沈。”(김필수 외3인역, 관자, p.526.

재인용)

47) 존 헨더슨,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 소명출판사, 2004), p.79. 존 헨더슨은 중국의 우주형상학에서 우주의 기본적인 구조가 보편적으로 규칙성, 대칭성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48) 李存山, 中國氣論探源與發微,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p.146-174.

49) 李東哲, 前揭書, p.72. 황제사경에서 천과 지는 상호대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생성과 운행의 과정에서는 하늘이 우위를 지닌다.

50) 아마다게이지 저, 김석근 역, 前揭書, p.40.

게 작용하고 있으며 天行으로 天道를 인식하는 바탕이 된다. 이로써 天道는 地道와 人道의 기준이 되며 人道에서 社會等級 秩序와 法體系의 근원이 된다.

3. 『黃帝內經』에 미친 영향

1) 天地陰陽論의 發展

(1) 天地陰陽

道는 理法으로 작용하여 순환과 반복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만물은 변화하고 운동한다. 道의 특성과 理法이 작동되는 대상으로 陰陽이 적용되는 바는 空間과 時間으로 나뉜다. 『黃帝內經』은 道의 理法이 空間에서 적용된다. 天地上下 사이에서 陰陽이 規律와 법칙으로 순환과 반복의 道를 발현한다. 陰陽의 規律와 법칙으로서 『黃帝四經』과 마찬가지로 『黃帝內經』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백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태고시대 사람들은 그 양생의 도를 아는 사람이었으니, 이들은 음양변화의 規律를 본받았다.”⁵¹⁾

“천지의 변화하는 規律를 장악하고 음양이 대립통일하는 規律를 파악한다.”⁵²⁾

“덕을 두텁게 하고 도를 온전히 하여 음양의 변화에 화합하고 사시의 시령에 따라 조양한다.”⁵³⁾

“음양을 따라서 행하면 (몸의 기가 다스러져서) 생긴다.”⁵⁴⁾

“대저 예로부터 하늘에 통하는 것은 생의 근본이며 (이 생의 근본은 하늘과 사람의) 음양에 근본한다.”⁵⁵⁾

“음양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강기이며 변화의 부모이며, 살고 죽는데 시작이고 신명의 부이다.”⁵⁶⁾

『黃帝內經』은 陰陽은 모두 변화, 規律를 말한다. 『黃帝四經』에서 말한 陰陽을 보다 구체적인 변화 規律로 정의하고 있다. 『黃帝四經』에서는 天과 地라는 陽과 陰의 개별적 實在는 상호 연관을 통해 변화와 운동을 한다. 天과 地는 상호보완, 투쟁하고 陰陽의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남을 말하고 있다⁵⁷⁾. 여기서 陰陽二氣의 상호 연관에 대한 陰陽의 구체적 작용 기전은 『黃帝四經』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黃帝內經』은 天과 地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⁵⁸⁾

더 나아가 天地上下 陰陽二氣의 상호관계를 內외의 空間으로 확대하여 表裏의 生理에 적용한다⁵⁹⁾. 天地陰陽의 陽升陰降이 六合構造에서 氣의 左升右降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⁶⁰⁾. 또한 인체의 담론으로 끌어들이 陰陽 相互關係를 통한 生理的⁶¹⁾, 病理的 機轉으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⁶²⁾ 治療에 적용하기 위한 氣味論의 토대를 구축하였다⁶³⁾.

지금까지 『黃帝四經』의 天地上下 陰陽論이 『黃帝內經』에서 上下-左右-內외의 空間으로 확대 발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黃帝內經』은 이를 기초로 하여 인체에서 生理的, 病理的 陰陽觀으로 적용하였고, 治療에 있어 氣味論으로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四時陰陽

『黃帝內經』의 陰陽論은 空間에만 그치지 않고 六合이라는 空間的 陰陽論에서 時間的 陰陽觀念인 四時陰陽을 결합시켜 陰陽論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인체를 이해하고 있다. 四時가 변화하는 가운데 陰陽氣가 순환, 반복하는 3차원의 인체라는 空間에서 생명을 유지, 실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 처럼 「上古天真論」은 陰陽이 법칙과 規律로 작용함을 정의하고 있으며, 「生氣通天論」과 「陰陽應象大論」은 天地·上下 陰陽論을 중심으로 인체에서 적용되는 陰陽의 普遍的 規律⁶⁴⁾을 주로 다루고 있다. 時間과 空間의 관념이 결합된 陰陽論은 「四氣調神大論」에서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⁶⁵⁾ 陰陽의 道가 순환과 변화-生長收藏-하는데 四時의 氣를 따라야 함을 정의하고 있으나 四時의 氣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 「金匱真言論」에서 “帝曰 五藏應四時, 各有收受乎? 岐伯曰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其病發驚駭. 其味酸, 其類草木, 其畜雞, 其穀麥, 其應四時, 上爲歲星, 是以春氣在頭也, 其音角, 其數八, 是以知病之在筋也, 其臭臊.”⁶⁶⁾라 하여 黃帝가 ‘五臟이 四시에 應해 감에 각기 五臟과 四時가 교감하여 주고받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岐伯의 답은 五臟이 四시에 應함에 각기 五方의 氣色을 수렴하고 四時陰陽의 영향을 받음이 있음을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봄의 시간이 肝에 感應하여 인체와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四

51) 『素問』 「上古天真論」 “岐伯對曰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이경우 譯, 前揭書, p.13. 재인용.)

52) 『素問』 「上古天真論」 “提挈天地, 把握陰陽.”(이경우 譯, 前揭書, p.44. 재인용.)

53) 『素問』 「上古天真論」 “淳德全道, 和於陰陽, 調於四時.”(이경우 譯, 前揭書, p.44. 재인용.)

54) 『素問』 「四氣調神大論」 “從陰陽則生, 逆之則死.”(이경우 譯, 前揭書, p.74. 재인용.)

55) 『素問』 「生氣通天論」 “夫自古通天者生之本, 本於陰陽.”(이경우 譯, 前揭書, p.83. 재인용.)

56) 『素問』 「陰陽應象大論」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이경우 譯, 前揭書, p.155. 재인용.)

57) 『十大經』 「果童」 “陰陽備物, 化變乃生.”(陳鼓應, 前揭書, p.300.)

58) 『素問』 「四氣調神大論」 “天氣, 清淨光明者也, 藏德不止, 故不下也. 天明則日月不明, 邪害空竅,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 雲霧不精, 則上應白露不下.” 「陰陽應象大論」 “故積陽爲天, 積陰爲地.” “故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故天有精, 地有形; 天有八紀, 地有五里 故能爲萬物之父母. 清陽上天, 濁陰歸地, 是故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 故能以生長收藏, 終而復始.”(이경우 譯, 前揭書, p.67. 재인용.)

59) 『素問』 「生氣通天論」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이경우 譯, 前揭書, p.111. 재인용.)

60) 『素問』 「陰陽應象大論」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이경우 譯, 前揭書, p.209. 재인용.)

61) 『素問』 「陰陽應象大論」 “故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支, 濁陰歸六府.”(이경우 譯, 前揭書, p.159. 재인용.)

62) 『素問』 「陰陽應象大論」 “清氣在下, 則生飢泄; 濁氣在上, 則生脹脹.”(이경우 譯, 前揭書, p.155. 재인용.), 「生氣通天論」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辟積, 於夏使人煎厥.”(이경우 譯, 前揭書, p.97. 재인용.), “故病久則傳化, 上下不并, 良醫弗爲.”(이경우 譯, 前揭書, p.104. 재인용.)

63) 『素問』 「陰陽應象大論」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味厚者爲陰, 薄爲陰之陽; 氣厚者爲陽, 薄爲陽之陰.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 “陰味出下竅, 陽氣出上竅.”(이경우 譯, 前揭書, p.159. 재인용.)

64) 『素問』 「陰陽應象大論」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重陰必陽, 重陽必陰.”(이경우 譯, 前揭書, p.166. 재인용.)

65) 이경우 譯, 前揭書, p.74. 재인용.

66) 이경우 譯, 前揭書, p.141. 재인용.

時陰陽觀을 기초로 한다. 「陰陽離合論」에서 三陰三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陰陽이 하나에서 수백천만가지로 나누어지거나 요점은 一陰一陽으로 하나이다. 陰陽의 離는 陰陽이 天地 日月이 되어 四時로 분화하여 만물을 낳고, 만물의 生長收藏에 應하여 陰陽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며, 陰陽의 合은 陰陽이 서로 分離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그 짝하여 의존함(待對)을 잃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짐을 의미한다⁶⁷⁾. 陰陽이 나누어질 수 있음은 陰陽의 多少와 特質에 따름이다. 四時에 따른 陰陽의 盛衰가 다르며 그에 따른 陰陽의 特質이 다르므로 순환과 반복의 道가 실현되고 순환의 과정에서 만물의 변화가 일어난다. 일정한 空間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몸 안에서 역시 시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陰陽二氣의 盛衰와 特質이 다르므로 氣가 上下, 左右, 內外를 순환하여 一週를 형성함을 설명한다. 곧 자연이 生長收藏의 과정을 거쳐 순환, 반복하는 것은 陰陽二氣가 자연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六合의 공간 안에서 生長收藏의 시간적 변화 속에 이루어지는 만물의 變化, 運動의 法則과 規律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2) 몸 안의 等級秩序

『黃帝四經』은 자연과 사회의 事物, 樣態, 君臣上下의 社會政治, 父子兄弟長幼의 가정윤리, 인간의 貴賤등 無所不在한 陰陽을 분석하여 體系化 하였다. 이는 陰陽의 普遍性에 관한 문제로 『黃帝內經』 역시 이러한 陰陽觀을 그대로 흡수하였다. 인체안의 等級秩序는 크게 『黃帝內經』이 『黃帝四經』과 마찬가지로 尙陽思想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양기라는 것은 마치 하늘이 태양과 함께 하면서 빛나는 것과 같이 즉 그 장소를 잃으면 수명을 요절하여 밝게 그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늘의 운행은 마땅히 태양으로써 광명하나니, 이러한 연고로 양도 그로 인해서 올라가며, 밝을 에워싸 지키는 것이다.”⁶⁸⁾

“무릇 음양의 요점은 양기가 밖으로 고밀해야 이에 따라 안으로 음기가 견고하다. 그러므로 양이 강하여 고밀할 수 없음에 음기가 따라서 끊어진다.”⁶⁹⁾

『黃帝四經』은 陰陽에 의해 배치된 자연과 인간의 질서 안에서 陽을 우위에 놓음으로써 陰의 가치를 중시하는 老子와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北方이 츩기 때문에 따뜻함을 좋아하는 北方道家的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론하지만 氣候 原因說 외에 社會的 構造, 즉 男女나 君臣, 父子 등의 위계질서에 관하여 儒家的 觀念과의 친화성과도 연관된다. 또한 老子와 다른 현실적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국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유 형태로 尙陽思想으로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⁰⁾.

이러한 尙陽觀念은 後代道敎에 실질적인 內丹 수련과 명상의 근간이 되어갔다. 內丹思想에서 陽은 先天이며 생명의 밝은

면을 대표하는 생명력의 상징이고, 陰은 後天이며 생명의 소극적인 면을 대표하며, 노쇠와 사망을 상징하기에 群陰을 제거하고 純陽의 仙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잘 나타난다.

『黃帝內經』에서 尙陽觀念과 함께 국가 정치체계의 위계관념이 몸의 질서 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黃帝內經』은 집중적으로 신체의 담론 안으로 국가의 관료 체계를 유비해 신체를 국가화 하였다. 근친한 것끼리 파급하며 공명하는 양식으로 인접적 통합을 이루는 신택적 관계(기)로 비유된다. 臟腑의 기능에 따라 臟腑 상호간의 위계질서를 의미하는 국가의 기구이자 직책을 뜻하는 官에 相似한다. 위계질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心은 人事制度의 君主와 유사하여 臟腑를 통솔하고, 肺는 인사제도상의 相傳과 유사하여 心을 보조하는 중요한 작용을 갖고 있고, 肝은 작전을 지휘하는 장군과 유사하여 外邪를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⁷¹⁾.

『黃帝內經』이 몸 안에 國家體系를 들여와 臟腑의 貴賤과 等級은 전체적 조직체계로서 전체 안에서 각 臟腑는 기능을 달리 하여 全一化 된다. 『黃帝四經』이 陰陽을 통하여 貴賤의 等級과 秩序로 사회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체계를 세웠다면 『黃帝內經』은 몸 안에서 전일한 국가 조직체로 통합함으로써 몸을 보다 전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열었다. 『黃帝內經』은 陰陽五行 등 宇宙論을 근간으로 한 感應의 秩序와 國家政治體制의 秩序를 절묘하게 결합해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包括體系와 局部的 體系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일방적이며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고 몸과 그 안의 각 부위는 모두 상호 보완적으로 반응하고 역동적이며 主와 從의 관계에 있기도 하고 同等한 관계에 있기도 한 感應의 場⁷²⁾이다.

결론

宇宙와 自然, 社會의 일관된 사상적 흐름으로 나타난 『黃帝四經』의 陰陽論이 인간의 몸을 담고 있는 『黃帝內經』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원형에 접근하여 현재의 한의학이 통찰하고 넘어서야 할 새로운 지점을 마련하고자 『黃帝四經』 陰陽論을 통하여 『黃帝內經』 陰陽論의 배태과정에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黃帝四經』의 陰陽體系는 陰陽을 空間의 場에서 인식하는 天地·上下 陰陽論으로 『黃帝內經』은 『黃帝四經』의 陰陽論을 인체를 인식하는 각 방면에서 흡수하였고, 더 나아가 평면에서 입체로의 발전시켜 左右, 內外를 막론하고 六合의 공간

71) 『黃帝四經』의 相關的 思考” 참조.

72) 『素問』 「靈蘭秘典論」 “黃帝問曰 願聞十二藏之相使貴賤, 何如? 岐伯對曰 悉乎哉, 問也! 請遂言之.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 腎者, 作強之官, 伎巧出焉.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凡此十二官者, 不得相失也. 故主明則下安, 以此養生則壽, 殁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 以此養生則殃, 以爲天下者, 其宗大危, 戒之戒之!” (이경우 譯, 前揭書, p.277. 재인용.)

73) 金義政, 前揭書, p.240.

67) 河根浩,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관한 研究. 博士論文, 2003.2 p.91.

68) 『素問』 「生氣通天論」 “陽氣者若天與日, 失其所, 則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 是故陽因而上, 衛外者也.” (이경우 譯, 前揭書, p.90. 재인용.)

69) 『素問』 「生氣通天論」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故陽強不能密, 陰氣乃絕.” (이경우 譯, 前揭書, p.111. 재인용.)

70) 金義政, 前揭書, pp.61-63.

으로 확대 발전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蓋天說에서 渾天說로 발전된 宇宙構造論을 통해 『黃帝四經』의 空間의 天地·上下陰陽論은 『黃帝內經』에서 四時의 循環을 입체의 人體에 적용하여 時空을 함께 論하는 四時陰陽論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당시의 科學 觀念을 반영한 『黃帝四經』의 陰陽論은 天地에 근거한 固定的 分類體系로 等級과 秩序의 원천이 되며, 『黃帝內經』은 이를 배경으로 몸 안의 等級과 秩序를 국가에 유비하여 全一의 조직체계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黃帝內經』은 본격적으로 陰陽論을 제기한 『黃帝四經』의 陰陽論을 醫學的 範疇에서 더욱 정교하게 확대 발전시켰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李東哲. 黃帝四經의 哲學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6.
- 吳 光. 黃老之學通論.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5.
- 李 夏. 黃帝四經陰陽思想研究. 山東濟南, 管子學, 2006.
- 주민출판사편집부.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6.
- 金義政. 黃老思想의 天人感應觀 研究. 西江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2004.
- 劉長林, 김학권 역. 주역의 건강철학. 고양시, 정보와 사람, 2007.
- 許慎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양계초, 풍우란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 김석진. 대산주역강의(3). 서울, 한길사, 1999.
- CI.레비-스트로스,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서울, 한길사, 1996.
- 조셉 니덤, 김영식 외 1인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The Shorter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ume 1). 서울, 까치, 1998.
- 정용환. 장재의 철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7.
- 앤거스그레이엄, 나성 역. 도의 논쟁자들. 서울, 새물결, 2001.
- 陳鼓應. 黃帝四經今註今譯. 臺北市, 臺灣商務印書館, 1995.
- 陳鼓應, 최진석 외 2인 역.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 鄭日童. 漢初의 政治와 黃老思想. 서울, 백산자료원, 1997.
- 야마다게이지 저, 김석근 역. 朱子の 自然學. 서울, 통나무, 1991.
- 김필수 외 3인 역.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 존 헨더슨, 문중양 역주.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출판사, 2004.
- 李存山. 中國氣論探源與發微.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 이경우 역.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서울, 여강, 1994.
- 河根浩.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關한 研究. 大邱韓醫大學校 大學院博士論文, 2003.